

달라이라마 친견하고 부처님 8대 성지순례

본지 11월 다람살라서 법석 마련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세계인에게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달라이라마(사진)를 친견하고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불교신문(사장 성직스님)은 여수 석전사 진옥스님과 함께 오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인도 다람살라 남갈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되는 한국불자들을 위한 달라이라마 특별법문을 듣고 인도와 부탄, 스리랑카 등을 돌아보는 성지순례를 진행한다.

달라이라마가 한국불자들을 위해 법문한 것은 지난 2003년부터다. 1998년부터 인도 다람살라를 방문해 달라이라마와 특별한 인연을 쌓은 진옥스님의 청에 따른 것이다. 진옥스님은 한국불자들에게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불자들을 위한 특별법회'를 12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스님은 "한국에 올 수 없는 달라이라마를 만나 것 자체가 불자들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책이 아니라 달라이라마의 음성을 통해 발보리심, 자비 등 대승의 기본 가르침을 배우면 한국불자들의 신행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성지순례는 다섯 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한국인 불자들을 위한 3일간의 달라이라마 특별법문을 듣는 것을 비롯해 15일간 부처님 생애를 따라 8대 성



지순례를 하는 A팀은 가장 볼거리가 많다. 오는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부처님

께서 정각을 얻은 보드가야, 첫 설법을 한 사르나트 녹야원, 열반에 든 쿠시나가르를 비롯해 슈라바스티 기원정사, 바이샬리 아소카 석주, 라즈기르와 나란다 사원을 순례한다. 이와 함께 텔리국립박물관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한 뒤 아그라로 이동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세계로부터 아름다운 인정을 받은 타지마할과 아그라성을 관광하는 시간을 갖는다. C팀은 아그라 관광을 제외한 13일간 순례로 11월 9일부터 21일간 진행된다.

이외에도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인도에 머물며 달라이라마 특별법문만 듣는 D팀과 11월 3일부터 15일까지 부탄 순례 후 달라이라마 특별법문을 듣는 E팀, 11월 9일 출발해 특별법문을 들은 뒤 스리랑카 불교유적을 탐방하고 11월 19일 귀국하는 F팀 등이다.

성지순례 1차 접수마감은 9월 12일까지며, 선착순 마감한다. 자세한 사항은 불교신문 성지순례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어현경 기자 eonakdo@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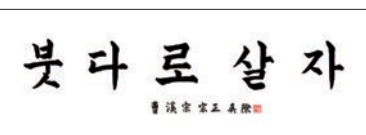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가톨릭 프란시스코 교황의 4박5일간의 방한과 관련 지난 18일 "종교를 떠나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시간이었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사진=AP연합

종정예하 '붓다로 살자' 휘호 내려

용인 법륜사 이어 조계사 전달
김포 금정사 '결사도량' 선포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스님)는 "종정예하에서 지난 7월 10일 결사추진본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붓다로 살자' 운동을 여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친히 휘호를 내려주셨다"고 밝혔다. 붓다로 살자 운동은 종단의 자성과 쇄신 결과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사부대중이 자발적으로 수행과 보살행에 참여하는 의



진제 종정예하가 '붓다로 살자' 운동의 확산을 위해 내린 친필 휘호.

식개혁신운동이다. 종정예하의 휘호는 한글로 '붓다로 살자'를 쓰고 하단에 '조계종 중

정 진제'라고 한자로 적었다. 결사추진본부는 친필 휘호 원본은 조계종 중앙기록관에 보관하고, 휘호 영인본은 액자로 제작해 '붓다로 살자'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결사도량 사찰과 단체에 전달할 방침이다.

결사추진본부는 종정예하 휘호를 지난 17일 만일결사 정진기도에 입재한 용인 법륜사에 전달했으며, 오는 25일 서울 조계사에도 전달할 예

정이다.

한편 김포 금정사는 지난 10일 '붓다로 살자 결사도량'을 선포식을 갖고 스님으로서 수행정진도록 보살계법회를 참석하겠습니다 등 6가지 생활 청규를 제정, 실천해 갈 것을 다짐했다. 금정사의 결사도량 선포는 조계사, 국제선센터, 법륜사에 이어 네 번째다.

엠평규 기자 che11@bulgyo.com

社告

제4회 전국 금강경 강송대회

- 일 정 : 2014년 10월 18일(토) 09:00 ~ 18:00
1차(필기: 외워쓰기) 09:00 ~ 10:10
2차(필기: 이해도) 10:30 ~ 11:30
3차(강송) 13:00 ~ 15:00
* 수행체험수기 발표 15:30 ~ 16:30
수상자 발표 및 시상 17:00 ~ 18:00
- 장 소 : 탄허기념박물관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14길 13-51, www.tanheo.org)
- 응시부문 : 강송부문, 수행체험 부문
- 응시자격 : 일반부: 재가불자(성인부, 노년부) 학생부: 중, 고등학교 및 대학생
- 원서접수 : 2014년 8월 1일(금) ~ 9월 30일(화)
* 수행체험담 모집 : 체험수기 제출(A4 2장)

- * 전월료 : 일반 3만원, 학생 무료(학생증 복사본 필수)
- * 지원서 다운로드 : 탄허기념박물관(www.tanheo.org), 금강선원(www.geumgang.org)

- 접수 및 문의처 : 금강선원
- E-mail : keumgang-sw@hanmail.net
- 우 편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82길 11 삼우빌딩 4층 (02) 445-8484
- 시험 유형 및 출제
가: 필기(외워쓰기) 금강경 32분 가운데 지정된 분 필기 (금강선원 발행 "금강경독송집" 기준)
- 한글, 한자 필기(한자로 필기시 가산점 부여)
나: 필기(이해도) - 금강경 내용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지필시험
다: 실기(암송) - 암송 + 운음, 소리의 크기 등
- 시 상 : 대상(총무원장상) 외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체험수기상, 특별상

* 주최: 금강선원, 제4교구본사 월정사, 탄허불교문화재단, BTN 불교TV, 불교신문

* 주관: 금강선원, 탄허기념박물관

일반 752명 전문 79명

포교사 합격자 발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스님)은 제19회 포교사 및 제8회 전문포교사 합격자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포교원은 지난 13일 제5차 포교원 회의를 열고 일반포교사 752명과 전문포교사 79명을 최종 합격자로 확정했다. ▶명단 14면 포교사고시 합격자는 대구경북 지역이 163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지역이 139명, 서울지역이 108명으

로 그 뒤를 이었다. 최고령자는 86세인 송택규(봉은사불교대학)씨이며 최연소자는 24세인 홍현승(화계사불교대학)씨다. 이와함께 전문포교사 고시 합격자는 강마례 포교사(문화예술전문포교사-불교문화해설포교분야) 등 79명의 포교사가 전문포교사로서 새로운 전법의 길을 걷게 됐다.

포교사와 전문포교사 합격자는 오는 9월 27일과 28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포교사단 8계계수계실천대법회에서 정식으로 품수를 받는다. 박인택 기자

“종교를 떠나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시간”

프란시스코 교황 방한관련
총무원장 자승스님 메시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프란시스코 교황 방한은 종교를 떠나 많은 이들을 위로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8일 가톨릭 교황과의 만남 직후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교황 방한은) 우리 사회가 성찰하고 지금 여기서 희망을 찾아가도록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특히 세월호 문제에 대해 자비로운 눈과 손길로 어루만져 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전한다. 가슴에 노란리본을 달고 유가족을 보듬어 주는 모습은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이들의 교회가 되라는 말씀도 우리 종교지도자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모든 지도자들이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며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한에서 보듯 말이 아닌 실천, 자비와 사랑 그리고 평화를 위한 힘찬 발걸음이 이 땅에 시작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스님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성당 코스트홀에서 이웃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교황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날 만남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남궁선 원불교 교정원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종덕 구세군대한본영 사령관, 암브로지오스 정교회 한국대교구장 대주교, 김철환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김동엽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이 함장하며 “좋은 말씀 많이 들었다. 환영한다”고 인사를 건네자 교황 역시 두 손 모아 인사를 전했다. 이어 프란시스코 교황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삶은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며 “서로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자”고 말했다.

엠평규 기자 che11@bulgyo.com

문화재청, 보물 266m 거리
토석 발파작업 허가 '물어' 2면

MBC 무한도전 '나눔의집' 성금 3면

불광산사 범종(중량 6700관)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이 사람아!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특성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聖鐘社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곡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